

### 13. 순천 운곡 대보름 액막이굿 인터뷰2

주제 : 2000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 준비 시 순천운곡대보름액막이굿의 준비와 진행 과정을 중심으로.

대상 : 김향순(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1호 동편제 흥보가 보유자)

일시 : 2022년 07월 07일(목) 19시

장소 : 사단법인 문화공간 소리골남도

참가자 : 배양순, 추성민, 전남숙, 김윤설, 박재철, 전수평, 배은화



김향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29-1호 동편제 흥보가 예능보유자)

(김향순)

그 양반이 오랫동안 지부장을 하면서 회장님 보고 형님, 형님해. 형님! 내가 지부장하고 죽기 전에 순천에 뭔가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리 됐어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만들어 주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요만큼이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네. 있어야 된다는 뭔가는 그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됐든 노래가 됐든 민속 놀이가 됐든 뭔가가 있어야지 전혀 없이 만들 수는 없네 이리 된 거야. 회장님이 그러니까 정동준회장이 그러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랬어 일차적으로

그래갖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정동준 회장이 저 우리 동네를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자기 태어난 동네를 한번 가보십시다. 거기 가서 파면은 뭔가가 하나 있지 않을까요? 이리 나왔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래 그 이왕이면 다른 동네에 해주니 자네 동네에서 하면 좋지. 그럼 자네 동네 뭐 있는가 허니 있다 그래. 그래서 그 당시에 어딘지는 몰라요. 상사 어디로 해가지고 들어가더라.

(배양순)

운곡마을 있어요. 운곡마을.

(김향순)

응. 그건 나는 이제 모르지. 그래 갖고 나 회장님 정동준회장. 그때 조 지부장은 갔는가 안 갔는가는 몰라. 자기 태어난 동네라더만 그리로 갔어. 갔는데 마을 앞애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 지금도 기억해 뭘 당산 같은 게 하나 있었고 그 앞애가 이런 돌 입석이 하나 있었어. 그 마을에 가.

돌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들어가자마자 저거 뭐냐? 그게 아니 마을에 옛날에 저 입석인데 저기다 제사도 지내고 그러합니다.

지금도 하는 가? 그런게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 그럼 됐네.

여기서 제일 원래 회장님은 조사를 하면 그래 여기서 제일 오래되고, 그 1대 2대 3대 4대 오래 산 집이 어딘가 그것부터 찾으시 그래야 이제 실타래를 풀은게.

그러니까 아 저 뭐 자기 친척 되는 영감이 한 분 계신다고 그래. 그러면 그 집으로 일단 가세. 그래갖고 회장님이랑 나랑 이제 서이 갔어. 그러니까 노인이 그 옛날에는 그걸 보고 토방이라고 그랬지. 토방에 노인네가 남자분인데 여기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회장님이 가 갖고. 저 본께 입석이 있던데 옛날에 저 입석에다 뭘 하셨습니까? 그 아이~~ 입석에다가 우리가 제사도 지내고 정초에 저기 뭐야 마을에 편안하라고 거기에서 매구도 치고 그랬네. 그러셨어.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 그러냐? 그리고 이제 이제 가서 이제 요새 같으면 옛날에는 그걸 회장님이 호구 조사라고 그래. 성 씨가 몇 년도에 여기 와서 살고 지금 현재 몇대 몇대 그 조사부터 이제 시작이 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자기 그때 말로 뭐 자기들이 4댄가 5 댄가 그래 갖고 거기 산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크게 했다. 근데 일제시대 때 그게 좀 막아졌어.

(전남숙)

아. 단절이 됐어.

(김향순)

일제시대 때 못 하게 했다가 다시 해방되고 동네에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저 저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동네에서 십시일반으로 걷어 가지고 다시 그걸 부활해 갖고 거기 에다가 당산에다가. 그리고 당산에다 이렇게 썩은 줄이 이렇게 있더라고. 회장님이 저 뭐냐니까 아니 그 전에 줄다리기 하다가 그 나무에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몰아 났다고. 본께 짚이 썩었어. 이제 일 년 되면 썩거든 비가 맞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 이렇게 딱 왔어. 이제 그래갖고. 이제 회장님이 이제 대강 인제 틀을 잡았어. 틀을 잡고 이제 그다음에 회장님이 혹시 그 동네에서 노래 잘하는 분이 있었냐?

그러니까 잘은 아닌디 그냥 대강 불렀던 노인이 있습니다.

그면 그 사람을 한번 순천 국악협회로 데고 와라! 이리 됐어. 그거 알았다.

그때 순천 국악협회가 소방서가 어딘가 있었을 때 거야. 저쪽에.

(전남숙. 배양순)

저전동. 소방서 2층인가?

(김향순)

그때 막 순천 가도 나도 연습하고 막 그럴 시기였어.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 영감님 보고 영감님 동네에서 불렀던 노래 있으면 노래해 보시오. 노인네가 뭐 하라 하면 내가 노래하니까 응 얼마나 됐는지 내가 이제 와서 노래를 해? 노래 다 까먹고 몰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어르신네! 그 말 들어보니까 짚 거식 할 때랑 꼬아 가꼬 이렇게 붙이고 뭐 저 줄다리기 할 때 노래 불렀다면서 그래 그러니까 노인네가 그줄 메고 오면서는 얼싸 더러덜렁 불렀지. 그래. 그러니까 회장님이 아~~ 여수하고 똑같구나. 여수하고 순천하고는 같은 거구나.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그러면 디딜방아를 옛날에 훔쳐 오셨으면 그걸 세우려면 마당에다가 땅을 다귀야 될 거 아닙니까? 근께. 다구지 그래. 그 다구소리 아십니까? 근께. 기억은 잘 안 나는 디 하기는 했어. 그래 그러니까 그 영감님 말씀이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래

요! 조금 좀 불러보게! 난 못해 다 잊어버리고 몰라. 그랬어 내가 어르신 딱 한 절만 불러보십시오. 우리는 한 절 들으면 이제 노래 흐름을 대강 알고 박자 같은 걸 알거든. 그 노인이 혼자 뭐 얼얼얼 상사두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딱 들으면 야 곡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우리가 글잖아. 노래 하다가 음 틀려버려도 음이 올라가는지 내가 이제 대강 알잖아. 원래는 이 음인데 여기서 내려갔구나 하고. 가사는요 그게 그 아무거나 동네 막아주라고 하고 뭐 그러고 지붕 상량 세우고 어찌고 어찌고 그 가사를 붙였어. 그래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러고 하면서 내가 그 영감이 보고 그런 것 같더라.

저기 구산 가면 물보기 곳에 다구질 소리가 있어. 구산 물보기에.

구산.

순천 구산 저기 저 주암에서 휴게소 못 가서 요리 빠지는 데 있잖아. 거기가 승주 승주 인터체인지 거기 가면 구암마을이라는데 거기가 거기도 우리가 작품을 해가지고 물보기곳이 전국대회에 가갔고 국무총리상에서 문화재로 지정했어. 거기야. 거기는 솟대를 세워 여기는 말하자면 입석을 해서 뭐 하자면 지금 디딜방아를 세우잖아. 거기는 솟대를 세워. 그래서 솟대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 불이 많이 난대, 그 구산 마을에 구산 마을에 불이 많이 나서 풍수.

저기 어떤 스님이 지나가면서 솟대를 세우면 불이 날 마을에 불이 적게 날 거라고 그런 말을 하고 가셨대.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서 자기들이 솟대를 세운다고. 그래가꼬 그 노래를 내가 이제 가르치고 그래놓은 게 알기를 그 노래를 살짝 불러주면서 혹시 이렇게 이렇게 합니까? 그게 비슷해! 그 영감님 글더라고. 그래서 이제 곡은 알았으니까 가사는 우리가 민속학적으로 보면 전라남도 일대 거의 70프로는 같다고 보면 돼. 가사는 꼭 그 지방만이 내려온 가사가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산아지타령 하면 거기서 그만 그만 그만 그만하잖아. 그래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으로 고 딱 정리. 그 저걸 얼싸 덜이덜렁 하면서는 줄을 메고 오고 그러면 방아를 돌아올 때는 노래 없습니까? 근께 그 영감님이 이제 그때는 그 영감이 회장님이 그렇게 한 줄은 몰라. 큰 사람인지.

어이 생각이 없어! 녀꺼 돌아오는데 큰 소리 내고 돌아온가?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알지. 그건 맞는 말이잖아. 도둑질 한 사람이 나 도둑질 허러가요~~. 악쓰지 않는다 그거야.

그러면 언제 갔오? 근께. 밤중에 간다더만 저쪽 마을에 다 잠들어 버렸을 때 살짝 가서 디딜방아를 살짝 모르게 갔다가 딱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지. 아니 자기 마을에 디딜방아가 대부분 마을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기 마을에 하나가 없어지면 저쪽 마을에 와서 항의를 할 거 아닌가.

요새 같으면 수박만 하나 돌려 가도 난리 나잖아. 응, 근데 디딜방아를 돌아오면 그 마을은 방아를 못 찜는다는 이야기인데 그 마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이 옛날에는 서리를 해도 말 안 했어. 닭을 잡아 먹어도. 그거나 이치가 같다. 그거야. 연자방아, 저기 디딜방아를 돌아가꼬 자기 마을에다 세워 불면 자기 거일 진정 말은 못 한다.

자기 것일지라도 가서 왜 우리 것 돌려 갔냐? 그런 말은 못 한대. 이 마을에서 액땀을 하기 위해서 돌려갔는가 보다 하고 그냥 좋은 뜻으로 생각했지. 그럼 그걸 왜 꼭 밤에 돌아갑니까 한께. 낮에 가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서 못 가게 막 난리가 나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난대. 그러니까 저 마을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대. 저 마을에 사람이 자냐 안 자냐. 그러니까 이쪽 마을 사람이 가서 봐. 봐가꼬 저 마을이 조용하고 잠든다 그러면 우리 이쪽 사람이 얼른 가자고. 돌러러 가자. 그 그래갖고 돌려갖고 살짝 갖고 와. 세울 때까지는. 조용하게 세우면 돼. 그러면 그 디딜방아 위에다가 디딜방아 이렇게 생겼어. 거기다 속곳을 건 이유는 뭐냐 하니까, 그건 민속 신앙에서 온 거야. 민속 신앙에서 그 마을에서 가장 아들을 많이 낳는 여자 속곳을 베껴가꼬 거기에다 피 묻은 속곳을 걸어 놔서 피는 빨간색은 뭘 상징 하나 하면은 액을 막는 상징이 빨간색이.

(전남숙)

보통 팔 색깔하고 비슷한건가요?

(김향순)

그렇지. 우리가 액막기에서 팔을 뿌리잖아. 그거나 그 고쟁이에다 빨간 핏물 든걸 묻히는 것도. 그것도 마을 액을 막는 것이야. 그래 갖고 돌라다가 거기다 세우고. 그러면 세우려면 땅을 다쳐야 되니까 다구 소리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고, 그래 갖고 인자 세워났다..

세워놓고 나서 그래서 제를 지낸다. 그거지

자~~ 디딜방아 우리 마을로 모셔왔으니까 저쪽 마을이 아니고 이제 우리 우리 것이 됐으니까 우리 마을과 안녕과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고사를 지낸다고 그러니까 회장님 이제 다 일일이 써. 회장님이 세밀하게 쓰셔서 갖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했습니까? 정월 대보름 날 줄다리기를 했지. 이제 그러면 암줄, 숫줄이 같이 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암줄을 메고 남자들은 숫줄을 메고. 그럼 노래는 뭘니까? 그러니까 얼싸 덜이덜렁 그랬다 그래.

회장님이 그러냐고 그러면 주로 뭘 줄이 이겼습니까? 이제 뻘히 알지만 그래도 증거가 돼야 되니까 그 노인들이 한 말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기면 그해 흉년이 든게 안 되게 여자들이 이겨야 되니까 남자들이 옆으로 저졌다 그거예요.

줄다리기를 할 때 따라가 준다. 그거요.

그래야 여자들이 이겨야 만이 그게 풍년이 들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리고 이제 대강 인제 그렇게 인자 조사를 하고 그 마지막에는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갖고 와 갖고 줄다리기를 해갖고 이긴 쪽이 여자 줄 밑에 감고, 남자들 위에다 감는다 그거야 그러니까 성행위나 똑같다. 그거야. 여자들이 밑에고 남자들을 위에고. 응 옷줄로 감았다. 그럼 감아놓고는 뭘 했습니까? 거기서 또 절하고 제사 지내지. 그러니까 아까 디딜방아한테 하는 제사하고 이쪽하고 또 다른 거야. 여기는 여기대로 한 것이고 여기는 여기대로 한 것이고.

그럼 줄 지르고 나서는 뭐 험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술 먹고 한 잔 먹고 노는 거예요. 그 놀 때 뭐 했습니까? 그런게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저 마을에 재수 있으라고 액막이도 부르고 농악도 치고 막 그랬지. 그러냐고 얘기대로 이제 회장님이 정리하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데 그 한 서너 달 걸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연출번호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거 해서 이거 대고 이거를 이렇게 해. 왔는데 노래는 자네가 말소 그래. 노래는 그러면 말은 것은 좋은데 누가 노래를 부를 거여? 그러니까 아이~~ 한번 가르쳐보고. 남이 디딜방아는.

저기 이제 뭐냐 다구는 원래 남자들이 하는건데 남자를 노래 가르쳐봤어. 통 순천에 찾아본게 이낙훈 선생 밖에 없어. 그 당시에 행님 행님하고 맨날 운전 하고 따라댕겨. 그럼 좋소. 이낙훈 선생 또 시켜. 그러면 이 액막이가 배선생님도 알다시피 농악에서 하는 액막이 노래하고 무가에서 허는 액막이하고 달라 가사는 비슷한데 약간 곡이 달라. 그래 갖고 액막이 그 노래를 돌아가신 그 무가 순천분 순태씨 있잖아. 순태씨하고 순태씨 부인이 이 노래를 알아. 그래서 녹음을 해갖고 와갖고 그러면 노래를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갖고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좀 불러주십시오. 근데 처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안 한다 그래. 알고 보니까 정동준회장이 무진장이 짠돌이야 무진장이 짠돌이야 그러니까 전국 대 나간 것만 해도 어딘디 이걸 왜 애 밝혔냐는 식으로 그래서 회장님이 그러니까 어이 동생! 그 사람들은 그것이 주업인데 줄만큼은 쥐야 되는데 거기서 돈도 많이 시에서 탈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형님 뭐 어찌고 저찌고 안 해버렸어. 이낙훈 선생은 쟤가 나게 나가 이제 노래를 가르쳤네. 근데 저양반도 문제는 민요 성음하고 판소리하고 달라야 된대. 꼭 소리 조로 해~~ 소리 조로 해부러 그러자 회장님이 한번 나보고 그때 나하고 같이 우리 선생님한테 노래 배우던 서봉예라고 있어 징 치면서 부르는 거 노래 했어. 순천 여자고도.

(전남숙)

그 사람 무당 아니죠?

(김향순)

아니요. 아니 저

(전남숙)

너무 딱이지.

(김향순)

소리 들어보면 몰라! 그때 이제 나한테 노래를 배우러 댕겼어. 또 서봉예씨가 근다고. 회장님 저 용돈이라도 벌어 먹게 자를 좀 무가를 좀 가르치소. 그래 그러네 어정목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무나 한대요? 아이 그럭저럭 잠깐 한 2분만 허고 댕기게.

꼭 가르쳐라 그거요. 그래서 이제 노래는 가사는 이제 외웠어. 그런데 이제 징을 치면서 해야 되잖아. 뭇이 어찌고 저찌고 하는디 또 하고 또 주술해야 되고 또 사이사이.

힘도 센 데다가 악센트가 강하니까 그게 안나 온 거야. 그 느낌이 안나와부러. 서여사 부드럽게 해라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자기 온 전공자가 아닌디 그게 될꺼여. 그래서 이제 날짜는 닥쳐 오지 뭐야 팔마 체육관 뒤쪽에서 두 달인가 연습했네.

전국대회에 나가라면서.

그래갖고 농악은 그때 누구를 했는가는 몰라도.

(전남숙)

그때 저희들이 했잖아요.

(김향순)

그랬는가

(전남숙)

네. 손 선생님이랑

(배양순)

옹이 형이랑 같이했어요.

여수에서 다 올라와서 광양 저 윤숙미 씨 쪽에서.

(김향순)

응. 맞아 맞아. 자우간 총 합쳐갖고 그래 갖고 했는데 이제 전국대회 갈 때까지는 분야별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무녀 하신 분이 순태씨 부인 박정자씨야 이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분이 안 한다고 그래 갖고 이거 안 한 게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이낙훈선생은 그래도 이제 나간 게 좋다고 자기가 한다고.

(김향순)

그럼 됐다 여자인 나라도 다구소리는 할 수가 없어. 이치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다구는 남자들이 하는 거야.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합시다. 그때 한 보름인가 남겨놓고 그래갖고 그 시기를 보고 또 노래 부른 여자들은 뭘 행자 들어간 여자가 있었어. 김행 뭘가 그 순천 국악협회에 정동준회장이 그래갖고 형님 저 여자를 선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보고 그래갖고 그 여자가 선창을 할 수 있게끔. 뭘 행 뭐야. 나 지금도 이제 몰라 행자는 뭘 좌우간 행자만 들어간 것만 알어. 이제 이제 키워주고 싶은 게 선창을 시켜주라 그거요. 그거 좋다고 도새 나가 안 하니까.

노래를 가르치는데 아이 이것 또 안 따라주지 음치 박치인디 그걸 어떻게 전국대회를 데리고 갈 거요? 좀 힘들겠는디요! 내가 그랬더만 정동준회장이 갈꺼여 안 갈꺼여. 그냥 막 여자를 보고 막 나무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노래라는 것은요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고 몇 십년을 그 속에서 사는 사람도 막상 대회에 가면 앞뒤가 콕 막히는 법인데 그게 되냐? 근데 이제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이제 정동준회장에게 쫓겨나고 제 안 시켜준다고 그러고. 그 여자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누구야 오지부장이라고 여자 있지. 여기서 그냥 사무관 이거 뛰었잖아. 그 여자를 또 시킬려고도 생각을 했어. 선창은 근게 정동준회장은.

(전남숙)

안 된다고 커트 당했네.

(김향순)

왜 그러냐면 이거 시키고 시키면 이거 난리 나. 본 게 근데 오공례씨도 시키려고 본께 안 돼. 배우지를 못해.

(배양순)

노래가 안 돼.

(김향순)

소리가 안돼. 자기는 명창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전달 할 수가 없어. 전달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 그래서 이리 밀다 저리치다 저리치다 저다라고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장님이랑 정동준회장이랑 이번에 마침 장소도 낙안에서 하니까 순천서 탈 수 있는, 순천서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때만 해도 조금 심사위원들하고 알고 로비를 하면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어. 그때만 해도 근데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전부 요새는 그리 않더만 전문가들만 앉아...

그때는 전남 민속 축제나 전국 대회는 누가 앉았냐면 민요는 이소라가 보고 저기 저 임동권 교수라는 분이 저기 그분이 민속학이면서 우리나라에서 민요론 대가야. 그분 보고 무용이나 농악은 정병호 교수 받아 중앙대 정병호 교수. 그리고 신찬균 씨라고 세계일보사 차장님은 그분이 또 대단해 이 민속악으로는 그분이 심사를 보시고. 아주 쟁쟁히.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이제 어쩔 수 없어 갖고 이제 나한테 톱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이. 이 사람은 얼굴.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 김 선생은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전국대회에서 가서 노래를 선창을 할 거냐? 상을 타는 것이 뭐 목적이지 김 선생이 얼굴이 무슨 상관이야! 정동준회장이 욕심을 한 거야! 이제 뭔가 만들어 놓고 본 게 뭐 될 것 같거든. 그래 갖고 소품 다 만들었지. 어찌지 그래서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어쩐가 저 정동준회장이 저렇게 목을 맨디 자네가 좀 도와주소. 그랬어 내가 그러면 내가 저 다구는 남자가 해야 되는 게 이 낙훈선생한테 맡기고 이것은 내가 차마 못 하겠소. 나도 모르지 나도 지도는 했지만 내가 징 치면서 이걸 할수가 없으니까. 그냥 잘하나 못 하나 서봉예씨 시키고 그 가운데 나가 노래만. 액맥이 노래하고 가운데 부분만 나가 헐라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연습해가고 이제 한 이. 삼일 전인가 우리가 낙안에서 막 연습을 하다가 회장님하고 이낙훈선생하고 또 한바탕 잔디밭에 싸우고 난리 난거 기억하는가?

(김향순)

그런 말 해도 되는가?

(전남숙)

다 하십시오. 이미 다.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우리는 다 잊어 먹지.

(김향순)

그 디딜방아를 돌려오면 원래 있던 마을에 방앗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갖고 저기다 지들 디딜방아를 넣어놓고 거기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방아를 찧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장님이 몇 미터 몇미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대로 세트 한 사람한테 가서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가 무대니까 저쪽에다 해놓으면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디딜방아 하나 메고 이렇게 본부석 앞으로 오는 걸로 하고 니가 그렇게 말으라 하니까 하! 걱정마십시오, 형님. 하루 전날 인자 리허설을 하려고 갔는데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뉘는거야. 회장님 성질 있잖아. 그러니까 아낙훈선생이 암말도 안했으면 싸움이 안 될 건데 자기도 사람 많은데도 여자들 많은 디서 이러라고 헨디 회장님이 난리를 친 게 이미 내가 이거 안해 먹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날 안 허면 다구 소리가 빵꾸가 난 게 지도 이제 한 번 지른 거야. 니 안허면 김선생이 하면 시키면되지. 이제 시끄름이 났어.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서로 회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살살 말하면 될 건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병신 만든게 나도 그랬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사과 하고 말았어. 그래갖고 이제 그날 출연은 이렇게 딱 하고 이제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될 수 있으면 얼굴 보이지 말고 나보다 수건을 이렇게 깊이 이만큼만 써버리라고 하얀 수건.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옷까지 해줬어. 나 이 옷 어디가 있어 지금 빨간 치마 흰저고리. 그리고 딱 나갔는데 중간엔가 한참 뭘 하고 있는데 본부석에서 뭘 기자가 하나 내려왔어. 기자가 딱 내려와 갖고 회장님 보고 저기 잠깐 심사위원 신찬균 씨랑 거 임동권 박사님이 잠깐 좀 뵈잖나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 가시더라고 우리는 이제 막 굿하고 뭉치고 막 정신이없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줄만 다려갖고는 무의미하다 그러면 암줄 솟줄을 누가 봐도 확연히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오공례씨는 할 일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 회장님 입이 좋잖아. 오여사는 생긴 것도 예쁜 게 쪽두리 써놓으면 이걸 거라 이런 거야. 그래갖고 쪽두리 해갖고 입히고, 그리고 남자는 누가 했던 거는 모르겠어. 나 화면 보면

(배양순)

조동점회장이 안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약간 멋있게 생긴 분은 아니야.

(김향순)

그래가꼬 회장님이 당신이 솟줄 앞에서 사모관대 쓰고 하고, 저기 암줄은 저기 오공례씨가 저기 쪽두리 쓰고 이쁘니까 이런 거 춤추면 기가 막힐 거라고 회장님이 이제 또 이만큼 띄어 놓은게, 그러면 나 회장님 그거 할까 이리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것은 원래 없는데 회장님이 연출상 집어넣은 퍼포먼스면서 그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연출가의 재량이야. 그것이 없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짜다가 아니고 이것을 돋보기 위한 하나의 화채라고 생각하면 돼! 모든 민속놀이나 이런 걸 만들 때는 기둥이 가장 중요해. 기둥이라는 건 그 마을에서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이게 가장 중요해. 그러면 기둥이 딱 쓰고 나면 그다음에는 옷을 입혀야 돼! 화채 가락. 자네들도 그렇잖아 어떠한 가락이 딱 기둥적인 가락이 있고 그 가락에 변주법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변주법이다 생각하면 돼. 그래 갖고 이제 회장님 그리고 있는데 한참 허고 있는데 거의 다 끝나갈 무렵 되게 회장님이 왔더라고 어이 나 좀 보세요..

올라 오라 해서 올라갔더니만 신찬균씨하고 정병호씨가 정 회장 이리 좀 와보시요! 그러더라. 그래서 왜요? 지금 노래 부른 사람 사모님 아니요? 그리된 거야. 그게 회장님! 예. 그게 이리 데 나오면 안 되지~~ 전문가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항의가 들어오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예 실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리 이리 했다고 인제 회장님이 이야기를 했다.

그럼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이리 들어서 뭘 약속? 이걸로 김향순이는 절대 민속경연대회에 나와서 선장은 안 하는 조건으로 이걸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수상을 할 것이고

(배양순)

도와주겠다.

(김향순)

수상을 할 것이고 그리 안하면 상 못주것소. 이리 됐는가 봐.

그래서 뭐라 그랬어? 그게 아니! 다음번에는 절대 안 한다고 하고 왔네. 그랬어. 알았어. 누구는 뭘 하고 싶어서 했어? 허랑게 했지! 나 이제 그래 불고 말았어. 그래갖고 어쨌든 대통령상을 탔어.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이것을 그 당시에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라고 회장님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정동준회장 보고 시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타가지고 순천시에서 행사 일 년에 한 번씩 문화재 같은 거, 순천시 뭘 문화재 그런 거 있잖아 일 년에 한 번씩 선을 보여라. 그래야 이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야지 이게 계속 애쓰고 고생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안 없어지고 계속 전승될 거 아니냐. 대답은 이해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본께 사람들도 물론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자들이 문제가 많드만. 어쨌든지 여자들이 꼭 사고를 쳐 여자들끼리 싸움이 생겨.

(전남숙)

서로 할라고 자기 할려고요. 좋은 거 하려고요.

(김향순)

여자들이 여자들이 깨닫고 응. 너는 뭣 하고, 너는 뭣 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내가 왜 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 여자들 중에서 그 당시에 제일 영리하고 체격도 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여자를 총괄을 시켜놓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 이 여자를 못 잡아먹어. 죽어 나머지 여자들이 그리고 아까 말한 거 행잔가 뭔가 요것은 나 노래도 안 시켜주고, 빼쳤어! 그리고 또 그 뒤에 그 소고 잘 친 할머니 있고 지부장 했던 사람 있잖아.

(배양순)

박영배지부장.

(김향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가 농악 대장 아니고, 뭐 하고 입이 이만큼 부로 터져 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회라는 것은 인정상 가까운 것 하고, 기능을 가진 사람은 달라 우리로서는. 어떠한 목표를 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우리로서는 써야 돼.

근데 내가 그래도 순천 살고 그런데 나를 상좌를 안 시키고 엄은 놈 데려다가 시킨다는 식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분란을 시키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자기 선창 안 시켰다고 또 분란이고. 또 여기 여자를 관리하는 그 여자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우리 보고 이제 끝나고 는 이래라 저래라고 한다고 그래갖고, 안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옛날부터 민속놀이는 여러 군데서 모아서 하면 머리가 아파. 이런 현상이 와. 어느 한 마을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제 악사들만 딱 투입이 되면 괜찮은데 여기는 순천 일대 사람을 다 모아.

(전남숙)

그때 모았어요.

(김향순)

사람이 부족하니까 순천 일대를 모으다 보니까 즈그 마을끼리 풍단 풍단. 저쪽 마을끼리 풍단 풍단. 또 저쪽 마을끼리 풍단 풍단.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지는 거야. 깨져서 오래 못 갔어. 그래갖고는 이제 한 번도 안 했을까? 그다음에는 시연으로 가. 시연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반도 못 갔어.

한 번 일등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시연을 하잖아. 그 다음에는 반도 못 가 갔고 그만 뒤 부고. 나중에 이제 회장님이 자네가 그 대통령상까지 받았으니까 문화재라도 한 번 신청을 해보고 조사를 한 번 시키소. 근게 말은 예 해놓고 했는디 가는 이거 안 생기면 뭘 일을 안 해. 다른 사람은 우리 생각하는 거 하고 달라. 그러면 예 대답을 해놓고 또 한참 있다가 어찌 됐는가? 그게 모르겠네요. 사람이 뭐 나온다. 했다. 안 나온다고 했다가 뭣이 어찌고 저찌고 그 회장님이 그래. 자네 하는 짓이 틀렸네. 그리고 말아서. 이제 지금까지 소멸이 된거지.

그러니까 나도 몇 년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거 본 게 벌써 22년이 됐구먼. 근데 엇그저께 자네가 준 보내준 음향 내가 뭘 노래인지 모르겠단거 있잖아. 기억이 안 난다고. 여기에 불렀던 노래가 음향을 다 내가 이렇게 들어보는게 내가 요새 와서 느꼈어. 그걸 듣고 참 노래 뭣지게도 못 했으나 봐. 노래를 들으러 보니까 청을 무진장에 높이 잡았던 마. 그래서 한 그게 벌써 20년 같으면 40대야. 그러니까 패기하고 힘만 있지. 그건 쓸라면 쓰고 말라. 패기하고 힘만 있지 어떠한 멋이나 이런 게 노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나가 듣고. 참! 우리 김향순이 드럽게 했네. 그리고 내 스스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자네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네들이 잘한 것 같단 말이야. 근데 10년 뒤에나 요새 했던 노래를 가만히 들으면 으메 내가 저걸 노래라고 불렀다 그 말이 그것이 어찌 보면 옳은 예술가들은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내가 잘한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엇그제 그거 듣고 내가 얼마나 내 속으로 아이고 젊다고 오살나게 청만 높여가고 악만 뻑뻑 썼지. 뭐 노래라는 게 들을 수가 없으면 내 스스로 하고 부끄러워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구나. 우울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다시 소멸된 것을 살리려면은 제일 먼저 손 끝에 하신 분이 잘해야 돼! 글 쓰시는 분이 타당성 있게 이것은 순천시에서 첫째 그분 그림을 그릴려면 색채를 그분이 잘 쳐야 이뻐. 그래가지고 순천시에서 뭘가가 우리 순천 거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걸 찾아서 우리가 도와갖고 여러 우리 순천의 실기인들이 있고 협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순천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관청에서 할 일이지.

이제 관청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그 색채를 하시는 것은 교수님이 그 타당성을 잘 쓰셔야 돼. 그래가지고 시에도 한 번 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전개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못해 그 마을에 비석이라도 하나 세워요. 운곡마을에다. 제 몇년도 몇월 몇일날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 우리 현천 소동패 마을처럼.

(전남숙)

전수관에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김향순)

응. 몇 년도에 거시기에서 전국 대회서 대통령 상을 탔다고 비석이 세워짐으로 해서 가치가 더 높아. 그러면 순천시에서도 관심 있어. 그게 그러려면 이 운곡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돈이라도 그 비석을 세워놔야 돼. 기념비를. 그래야 누가 와서 보거나 시에서 보더라도 이게 있구나 있구나. 마을에서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나 도에서 가서 보면 흔적이 없잖아. 흔적이 없는데 문화재를 만들 수 없죠. 그러니까 첫째는 그 교수님이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나 생각이. 나 생각이 그래. 그다음에 이 마을에서 조그마한 다음은 몇십만 원짜리라도 기념비를 하나 세워놔야 돼. 그래갖고 그다음에 이제 시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가 비석에가 아! 대통령상 탄 게 이게 있구나. 그러면 이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보조를 해주면 이제 순천에 있는 저기 뭐냐 관심 있는 국악인들이 모여갖고 단체를 만들어 끌고 가야지. 그게 꼭 광범위하게 할 필요는 없어. 한 형식적이니까. 내가 보기에는 농악 또 한두 명 이렇게 이렇게 이려고 놀이꾼이 있고 뭐 다구도 한 두세 너 개만 넣고 그러면 한 5~60명만 동호회가 만들어져도 1년에 한 번씩 그걸 재현할 수가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나머지 속제는 순천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 말씀하세요.

(배양순)

이제 이제 다른 건 모르고 올 봄에 정동준 회장님을 몇 번 뵈어요.

그래서 운곡마을을 갔다 왔습니다. 모시고 또 식사도 하고 윤기중이라고 했지만 한약방 하시는 분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같이 식사하고 운곡마을에 갔다 왔어요. 마을 가니까 입구에 당산. 아까 말씀하신 당산나무 있고요. 암당산, 숫당산이 있고 마을 안쪽에 들어가니까 바로 그 탑석이 있고.

(김향순)

응, 입석

(배양순)

조그맣게 꺼멩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은 보존이 잘 돼 있다기보다는 약간 방치돼 있는.

(김향순)

그렇지. 방치. 그때도 그러더라고.

(배양순)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 왔었고. 그때가 이제 전국에 지원 사업을 올릴 때 회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뵈었고요. 이제 이 공모 사업은 이 금액

이 크지도 않고 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연구 작업이라. 오늘 선생님께 이제 궁금한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좀 그렇고 그 이후에 회장님. 한 분 모시고 정동준 회장님 모시고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눴던 부분을 좀 이렇게 근거로 조그맣게 삼아서 마을의 어떤 마을이 해왔던 거라든지 아니면 정동준 회장님이 지금까지 운곡액막이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관한 부분 이야기를 좀 듣고.

(김향순)

이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이대로 소멸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이걸 자네들이나 순천시에서 관심을 갖고 이걸 재현하는 방법을 원하니까 그걸 본인한테도 물어봐요. 어쨌든 시작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 들었으니까!

(배양순)

회장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박영배 전 지부장님을 뵈어요.

자료 협조 차원에서 전화를 드려서 구하러 직접 얼굴을 뵈었는데 거기는 박초월 대회에 꽃혀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박초월이라는 분이 순천분이다. 원래 태생이. 거기에 꽃혀가지고 그 이야기만 줄기차게 주구장창 한 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김향순)

지금 판소리가 아니고 요걸 찾는데 판소리가 나와.

(배양순)

순천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네. 하면서 나는 박초월이라는 사람이 순천 사람이라는 걸 찾아다녔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문화재 관련 상신을 하셨나 봐요. 문화재 관련 이것도 정동준 회장님이 문화재 관련해서 상신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 여쭙보니까 왜 안 된 거냐 여쭙보니까.

(김향순)

법인인지 단체인지 어쨌든 만들었다고 보존회든지 뭐든 만들었다 그말이겠지.

(배양순)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상신을 했나 봐요. 전라남도에다가. 근데 이의 신청을 이제 한 거예요.

(배양순)

그러한 사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의 신청이 돼가지고 이게.

(김향순)

응..그게 됐구나.

(배양순)

문화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떤 상황이 생겼느냐?

몸이 좀 아프셨나 봐요! 정동준 회장님이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의 자료나 모든 걸 다 그냥 애정을 끊어버린거죠. 끊어버리고 신경을 안 쓰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이제 여쭙봤어요. 정중히 여쭙보니까 회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그러한 어떤 역사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회장님이 갖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악협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쭙보니, 국악협회는 아무 관계가 없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국악협회에서 물품도 보관하고 했지 않습니까? 관계가 지금은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회장님 저희 단체가 이 일을 어쨌든 숙고해서 정말 성실하게 잘 만들어볼립니다. 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 허소. 자네들이 한다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향순)

국악협회에는 관계가 없다는 말은 맞아. 그 당시에도 자기가 지부장이지만은 자기 마을을 위해서 그걸 발굴하고 작품을 해주라는 거지 순천 국악협회를 위해서 발굴해서 작품을 해주라는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 뭔가를 하나 남기고 싶다고 해갖고 한 건데, 그러면 한번 알아보세요. 그게 마침 형님 우리 마을에가 이리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형님이 좀 이리저리 만들면 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시작이 된 거지. 국악협회에 관여 없단 말은 맞아.

(배양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래서 올봄에 3월달 2월말 3월달쯤에 회장님 두 번 찾아뵙고 이제 했고요. 지금은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선불리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체계를 세웠나 하면요.

지금 이제 6월달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회의를 했고 6월 둘째 주부터 영상에 있는 자료들을 어쨌든 분석을 하고 동선이나 가사, 노래, 곡 어떠한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요. 또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동선이 다 정리를 거의 80% 이상 해냈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정리된 상황에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일단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다음 이제 정동준. 그다음에 회장님을 통해서 또 본인의 의사나 앞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어디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정확히 여쭙보고 싶고요.

(김향순)

거기서 또 이의 제기하면 시끄러워져. 안고 같이 가고 어찌 보면 정동준 지부장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자네들을 자기 마을을 위해서 그 소멸 사장 되버릴건데 지금 살려내고 생명. 지금 우리 물줄기를 주려 하고 있잖아. 그러면 자네들 보고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할 필요 없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아니지

(배양순)

그런 뜻은 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해놓고 이제 연구 작업은 이 내 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이제 책으로 만드는 부분들은 몇몇이 모여서 이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1월까지거든요. 어쨌든 하고 그다음에 복원에 관한 부분들은

(김향순)

내년에나 되겠네. 복원 같은 것은 내년에나 되겠다..

(배양순)

한 4~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시하고 안 되면 도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무튼 순천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김향순)

참 좋은 뜻이네.

(배양순)

네. 어쨌든 좀.

(김향순)

순천은 복 받았구먼.

(배양순)

잘 해서

(김향순)

근데 그걸 안 알아준단 말이지. 관청이고 어디고 자네들이 그런 걸 하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조그만한 단체에서 없는 살림에 그런 걸 해갖고 순천에서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재조명해야 된다는 뜻을 관청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도움 줘야 되는데 1년 지나면 저희들 가 본 게 그걸로 땡이고 또 새로 온 사람 또 오면 또 그 다음 가보면 땡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뿌리 내리기가 어려운 거야 그게.

(배양순)

이제 순천문화재단 사업인데 재단 측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계세요.

그쪽에서 예산 조그맣게 지원했지만 어쨌든 이것이 순천의 중요한 어떤 자원으로 만들어지면 자기들도 기여도가 굉장히 큰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또 교육 쪽으로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여수 보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 소동줄놀이를 봤어요. 얼싸더리덜렁하고 진남제 때 보면 이렇게 전야제 이렇게 가는 거 보면은. 순천은 진짜 이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청하고 잘 연결되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아이들한테 좀 민속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김향순)

좋은 뜻이네. 나로서는 나가 지도하고 출연했고 같이 22년 전에 고생했다는 걸 생각했을 때 참 그걸 다시 어찌 보면 고목나무에 인자 새순이 돋게끔 하는 건 자네들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도와줘야지 얼마든지 좋은 뜻이지.

(배양순)

또 이제 여쭙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쭙보십시오. 저 이제 그거 하나 여쭙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약간 이게 어쨌든 정리를 하고 복원하는 것이 저희들은 복원의 의미거든요. 복원 자체가 이게 지금 영상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복원을 하게 될 건데 실제 노래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의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위에 어떤 연극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극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을 사람들과의 이런 거 디딜방아를 때려 가는 것도 약간은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김향순)

아니. 돌라갈 때는 연극적 요소가 있지. 전부 그 당시에 이려고 갔거든.

(배양순)

돌르러가세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다가.

(김향순)

그 당시에는 이랬어. 어쨌든 저 마을에 사람들이 깨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건 내가 기억해 제일 앞에 여자 선두가 서갖고 따러오라 그거야.

(배양순)

조용히요?

(김향순)

그러면 뒤에 여자들이 허리를 굽히고 살금 살금 살금 그 방앗간으로 갔어. 그래 갖고 열른 문 열고 그거 딱 집어넣으면 이래. 그러면 빠져.

(배양순)

그 남자들이 떼잡아요. 남자들이.

(김향순)  
여자들이었어.

(배양순)  
남자들이 떼가지고 여자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아니.

(전남숙)  
원래 여자가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는거예요?

(김향순)  
여자들이 들고 왔어. 거 화면에 보면 여자들일 켜데.

(전남숙)  
아니 남자들이 있던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봐야.

(배양순)  
떼가지고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서.

(김향순)  
아~~ 주는 것은.

(배양순)  
떼가지고 어깨에다 메다 주는 건 남자들이 하고, 딱 어깨에 메면.

(전남숙)  
여자들이 이제.

(배양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배양순)  
그전 디딜방아를 떼러 가자라고 하잖아. 하면서 가잡아요~~  
그 가기 전에 그 앞에 우리 마을에 뭐를 위해서 디딜방아를 떼다가 세웁시다. 이려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연극적인 요소를 좀 넣어서 복원을 한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때는 경연 관계로다 시간 자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 번쯤은 그 부분이

(김향순)  
그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은 이제 연극 하시는 그분들이 펜 한 번 놀리게. 연극성.

(배양순)  
길게는 아니더라도 한 1~2분 정도 사연들을. 왜 그걸 왜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김향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지. 동네 원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지. 우리 마을에 이런 액운이 있고 재앙이 따르니까 그걸 막으려면 건너 마을에 우리가 디딜방아를 훔쳐오자. 지 금처럼 이렇게 원래 회의가 이루어지는 연극적인 게 있어야지. 그러면 옳소! 그럼시다. 그럼 언제 갈까요? 뭐 정월 대보름 몇날 몇시에 가자. 이런, 그런 거.

그런 건 관계없어. 그건 어긋나는 법이 아니야. 옛날에 그랬지만 우리가 어떠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은 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삭제했다고 그러면 그건 배선생님 말이 옳아요. 왜 그러냐하면 전국대회에서 그러고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지루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대회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회장님은 그러잖아. 술 따르고 인사만 하고 그만해. 처음부터 끝까지 유세차 이러면 심사위원들이 제일 싫은 거 그거요. 술잔 부어놓고 절하면 저것이 제인갑다 이려고 다 자기들은 다 안다 그거야. 근데 그것을 몇년 몇월 몇일 뺐고 있으면 점수 주고 싶어도 안준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부 삭제야 옛날에는 했지만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하지 않는 것은 않는다 그거야. 그러니까 방금 배선생님 말대로 이제 이걸 하나의 이야기거리나 뭘로 이렇게 꾸준하게 복원을 하려면 그런 거 넣으면 좋지. 우리가 경연에 나갈 거야 아니니까. 복원은 한 시간으로 든, 40분으로 하든, 50분은 관계가 없어. 경연은 주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그런 걸 뺄 수도 있지. 그럼 배선생님 말이 좋아요..

(전남숙)

그러면 선생님. 아까 그 디딜방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어떤 민속적인 동양철학이 됐든 앞으로 재연할 때도 반드시 그 법칙은 지켜야 되는 거죠?

(김향순)

그렇지. 원칙은 지키는 것이 좋은데 지금 시대가 우리가 옛날에 농악 상쇠가 여자가 있었어요? 없었잖아. 옛날에 지금은 여자 빼놓으면 농악도 안돼. 시대의 변천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다구를 당연히 남자가 하면 좋지만은 재연을 하는데 감이 없을 때는 여자라도 목 좋고 노래 잘하면 하는 것이 낫지. 요새 저 여자 상쇠가 옛날에 어디가 재수 없다고 안 했지. 그렇지만 지금은 여자들이 더 기고 날잖아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꼭 남자가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 그런 법칙은 없어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김향순)

어떤 데는 구암 같은 데는요. 거기에다가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떤 거식이 아니라 수염을 상징이요!

(배양순)

이 수염으로 나온 데도 있고

(전남숙)

기러기 수염?

(김향순)

수염으로 이렇게.

위에 나무가 이렇게 기러기로 있으면 밑에 이렇게 늘어져.

(배양순)

혹시 짐대를 세우는 것을 보면 마을 앞에다가 세우고 중간중간에 세운다고 나는.

(김향순)

내가 하는 회장님한테 들은 이론은 그 기러기를 세우는 것이 그 마을에 화마나 나쁜 불을 기러기가 물에서 자잖아. 이게 화마를 막는 기능도 있고 이정표 역할도 했다고 들었어. 마을 입구에 세워놓으니까. 그럼 여기 들어오려면 요 앞에다 세워놓으면 아 이 소리골 남도가 여기 들어오는구나. 이정표 역할 두 가지 기능을 했다고 그래. 회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주로 수염을 기리기 수염을 만들어 곡식을 거기다 했던 말은 나는 못 들어 대 나무를 얇게 깎아. 그전에 전국대회 구암 물보기곳. 거기 전국대회 갈 때도 대나무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잘게 쪼개갖고 거기다 휘어지게끔 이렇게 수염을 깎다고.

짐대라고 하기도 하고 솟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랬지.

(추성민)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게 이제 수이기도 한데, 오리 이런 애들이 물을 뿜어내는 현상 갖고 불이 오면 우리는 다 막아낼 수 있어. 해갖고 물 뿌리는 형상을 또 상징화하려고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했다.

(김향순)

그런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승주 주암면을 가보면 거기가 물보기 곳이 문화재로 지금 지정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솟대가 잘 돼 있을 거야. 그거는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전남숙)

같이 한번 가봐야 되니까.

(김향순)

그래갖고 우리가 전국대회 갈 때 그 주암 안에 그 학교에서 연습시키고 그랬어. 밤에

(김향순)

물보기 물을 본다.

그 해의 풍년을 기원하려면 그 마을에서는 향아리를 땅에다 묻어요. 땅 속에다

(전남숙)

그 이야기 들어봤어요. 맞아요.

(김향순)

땅에다 묻어갖고 위에 뚜껑을 딱 덮어놔. 덮어놓고 그 첫 해가 풍년이 든가 하는 거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그 자연적으로 생긴 물 양에 따라서 적게 들으면 흉년이고 물이 많으면 흉수가 나고 그래서 적당히 차야지 그게 풍년이 든다고 그랬어.

그 노인들이 말이 주암 물보기 곳도 있고, 이 그러고 보니까 순천의 문화재가 두 개다. 승주 달집태우기도 있고 맞아.

(배양순)

여기 안 나온 지 오래됐어요. 이게 저희들이 순천에 찾아보면 이게 안 나오는 지가 오래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김향순)

그럼 끊겼는가 보다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응. 있어요. 솟대를 참 잘 만든다.

(추성민)

90년도 몇 년도에 문화재가 됐다고 있었는데 순천 막 찾아봤죠. 그런데 없어요. 중간에 뭐가.

(김향순)

가서 돌아가시면서 밑에가 후계가 없어. 달혀버리니까.

(추성민)

지정되었다고는 써 있던데 찾아보니 없어요.

(박재철)  
97년 5월 15일.

(추성민)  
돼 있었는데.

(박재철)  
도문화재.

(김향순)  
그래 맞아.

(박재철)  
구산 용수제로 되었는데.

(김향순)  
그래 맞아.

(전남숙)  
구산?

(김향순)  
구산 마을. 근께 구산 용수제 맞아.

(김향순)  
구산있어. 송천 달집은 1년에 한 번씩 하더라 항상 보면. 그것도 국무총리상 나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그거 타러 갔을 때 나는 맹장이 터져 갖고 성심병원에 입원해 있어갖고 못 갔거든 전국대회. 그때 그것을 경상도인가 어딘가 했는데 참 회장님이 머리가 좋아.

달 떠온다~~ 그러면, 하늘에 달이 떠 갖고 와서 인자 그 불을 지르거든 달집에다가. 근데 한 달 전부터 막 머리를 싸매고 막 뭘 생각을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달을 뭇로 상장을 해 갖고 만들어야지. 연출을 해야지 그게 효과가 있을까 어쩔까? 나중에 방송에서 보니까 애드벌룬 노란색 그걸 저쪽에 누구 보고 들고 서 있으라고 했다가 이제 이쪽에서 신호 딱 주면 짹 올리면 이쪽에서 달떠온다 그래갖고.

그런 게 이제 연출가는 그때그때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 그래갖고 나는 성심병원에서 맹장 수술 해갖고 드러 누워있고 딱 이거 가지고.

언제 도문화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문화재 위원 보고 거의 소멸돼 불었는지 소멸이 됐으니까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송촌에 1년에 한 번씩 달집 태우기로 하니까 계속 전승이 되니까 그 뉴스에서 보면 맨날 나오더라고. 저기 정말 대보름 때 뭐 전남권 뉴스에서 어디서 달집 태우기하고 어디서 뭐 했다고 송촌은 계속 연결되는데.

그러보니까 순천이 많이 작품을 좋은걸 많이 했구나!  
옛날 승주 들노래도 있었어.

(전남숙)  
승주 들노래요?

(김향순)  
내가 만들어 줬었어! 그래 갖고 그 선창을 내가 누구를 가르쳤냐면은 남편이 저 한우 나오는



데 거기 어딘가? 황전. 황전에 노래 잘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어. 영감이 저기 한약방 하고 마누라가 노래를 좋아해서 맨날 노래만 부르러 다닌게 영감이 그냥 질투해서 못 나가게 막 붙잡아 놓고 그랬거든.

그 양반을 가르쳤는데 목이 역세 역세니까 힘은 좋고 막 그런데 좀 역세. 그래갖고 남도문 화제에서 대상까지는 탔어. 그런데 전국대회는 못 나갔어. 그래갖고 우리가 어디서 그 사람을 연습을 시켰냐면은 저 지금 없어졌어 승주 군청 있잖아. 군청 마당에서 우리가 연습시키고 그랬어.

그 전에 승주 마을 지부장님이 굉장히 국악에 관심이 많았어. 그래갖고 그 양반이 딱 우리 하나 뭐 하나 하자고 그래갖고 몇 개 주서 갖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갖고 승주 들노래를 하나 만들었어.

(전남숙)

낙안면이지요. 면이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서 물러내려오는 이런 자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시내쪽으로는 그런 건 없었죠.

선생님 그러건 없었죠?

(김향순)

순천시는 순천시내는 없었고 낙안애가 예술인들이 다 살았어. 회장님 그 전에 조사해 놓은 거 보면은 저거 저 저 뭐냐 우리나라 1세대 명고라는 그 누구야 오성삼씨 있잖아. 오성삼씨가 낙안에서 왔단 말이 있어. 회장님이 조사를 해 보내놓은 거 보면 거기서 왔고.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 오태석선생이로 뭐로 다 낙안 출신이야. 그러니까 낙안애가 어찌 보면 예술인 집단촌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들 다 나와갖고 요리 가고 저리가고 저리가고 요리가고 무가는 회장님이 저기 조사를 해보면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고흥쪽에서 많이.

(전남숙)

무가쪽은?

(김향순)

무가는 고흥에서 많이 나와. 고흥서 나왔고, 요리조리 순천 어디로 퍼졌고 예술인들 가야금 병창은 오태석이니 명고인 오씨 그 같은 집안이라. 조사를 해보면 오태석이니 그 저 일대 명고인 오성삼이랑 그쪽은 그 윗대들이 전부 낙안에서 살았는데 조사해 보면.

회장님이 오성삼이 하면서 막 주민등록 등본 뭐 호적등본 막 그 전에 막 떼러 댕겼거든. 오성삼씨 그 비석 세우고 할 때 고흥에다가 지금은 그 비석 누가 관리도 않고 고흥 사람들 모르더만 잘 오성삼이 누구냐고. 군청에도 모르대 문화원도 모르고 그런데 고흥 사람들 고흥 문화원 원장을 보고 명창대회만 하지 말고 오성삼 고수대회를 하라 그거요.

고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야 김연수씨 책에도 보면 1세대 명창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복을 잘 치셨대 생긴 것도 잘 생기고 아주.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없잖아. 다 개체들 그때만 해도 무당 자식이 또 단골내 새끼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떠나불고 없어갖고 인제 산속에 이름도 없는 걸 그때 회장님이 유산 고유회를 만들어갖고 그 시체를 산에서 파가지고 땅 해갖고 비석으로 묘석까지 다 만들어가고 그때.

그런데 문화원도 모르더라고 그 오성삼이에 대해서. 그래갖고 회장님 몇 번 이야기한 게 이제 나중에서 뭐. 문화예술회관에 가면 김연수실 오성삼실 만들어만 났어. 근데 별로 관심 없더라고 고흥사람들은.

(전남숙)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동부 지역이면 여수 광양, 순천, 고흥. 이렇게 어찌 됐든 이 금방에서 공통적으로 있었던 민속놀이나 노래가 있었고 순천에 두드러지게 독보적으로 좀 잘 불렀던 노래나 아니면 여수.

(김향순)

순천 여수는 솔직한 말로 똑 부러지게 하는 노래가 없었어.  
우리가 알기에는 주로 동부 쪽에. 그래서 옛날부터 동부 쪽에 명창들이 별로 없었네. 목 좋은 명창이 없어 참 묘하다고 그랬어. 애잔하게.

(전남숙)

고흥출신들은 좀 있잖아요

(김향순)

동부 쪽에서 그중에서 목 타고난 사람들이 고흥 출신들이야. 그 외에는 동부 쪽에 소리꾼이 그렇게 많이 없어. 광양도 별로 없고 여수도 목 좋은 사람 없고 근디 동부 쪽에서는 고흥쪽이 제일 낫고.

서부 쪽으로 가면 목포, 해남, 진도는 목들이 타고 났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옛날에도 회장님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보면 이게 토양에서 오는 그런 점도 있다고 보더라. 어쨌든 이쪽에는 노래꾼이 없어.

(배양순)

영상 있죠. 영상. 영상 그거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인사긔 치고.

(추성민)

맨 처음에요.

세 번. 아~~. 인사가락을 치는거.

(전남숙)

그러니까 우리 대회 때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르지.

(배양순)

다음에는 선생님께서 잘 안하셨죠. 다른 여자분이 했지.

(김향순)

몰라! 나는 전국대회 때만 했지. 그 뒤에는 안 했어.

(배양순)

이거 끝나고 나면 인사를 하거든요.

(김윤설)

그게 다 마당별로 다 똑같지 않고 다르기도 하고.

(김향순)

짐대를 세워 놓고 인사를 하는 거야.

(배양순)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또 하거든요. 세 번 하는데 처음에 인사를 땅땅 땅땅 다다당 땅 땅 딱 하고 보통 꼬땅땅땅 땅하고 세 번 하고 털고 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땅땅 땅땅 다다당 땅 땅 딱 그 땅땅땅땅땅 또 이렇게 또 한번, 세번 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 하거든요.

보통 풍물 굿에서 보면 이채 치고 딱 뺏으면 바로 땅땅 땅땅 처음에 시작할 때 하거나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갱갱 갱갱 개개갱 갱 갱 객은 처음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굿이 끝날 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사를 지낼 때나 이럴 때는 보통 그냥 터는 걸로. 삼배 하는 식으로 보통. 이제 절차를 보통 그렇게 하는데.

(김향순)

인사 세 번 해라 그러니까 한 거지.

(전남숙)

그러니까 굳이 인사를 하기 아니면 놀이가 끝났다는 걸 알려주고

(배양순)

그게 아니라 인사굿 자체가

(김향순)

그리 아니거든. 또 이런 경향도 있지 노래꾼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땡땡 땡땡 하면 아 이건 인사하는 굿이구나 알아 듣는게 그 신호일 수도.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있거든. 상쇠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아니하면은 이것을 침으로 해석은 나머지 아까 76명인가 몇 명인데 79명이 통일을 할 수가 있는 그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기능으로 한 것 같고 근데 그걸 꼭 어느 것이 맞다 할 수는 없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지 어쨌든 이제 짐대를 세웠으니까 이제 짐대 신에게 이제 정중하게 절을 하는 거지 세 번.

(배양순)

그 부분 때문에 좀

(김향순)

그건 이제 배 선생님은 보시겠죠. 아까 같이 털기만 세 번 넣더니 그건 관계없어요.

통일 하기 위해서 이쪽 사람들은 그냥 따라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도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통일하기 위해서 꼭 인사 구절 앞에다 이렇게 치면 전부 농악 치는 사람들이 대놓은 게 알아듣고 저런가 보다 그러고 저럴 수도 있어.

(김윤설)

그때 옷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렇게 양 갈래로 검은색 빨간색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김향순)

응. 그거는 우리가 연출을 할 때.

(김윤설)

극적인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 그게 좀.

(김향순)

아니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야. 좀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색깔로 그리고 옛날에 검정치마나 자주색 치마를 엄마들이 많이 입었어. 그래서 그걸 이왕에 똑같은 돈 주고 옷 해 입힐 바에는 그냥 반반씩 섞어서 하자 이랬지. 그걸 꼭 반반씩 갈라서 해 입혀야 된다는 그거는 없었어.

(김윤설)

그거 하고 이렇게 마당별로 마지막 털 때 인사굿 하는 거 있고 안 하는 거 있고 그게 궁금했었고 막 주술하잖아요. 주술할 때 남자들 짝 빠져 숨어 있다가 여자들만 있다가 그게 모여서 막 이렇게 빌다가 노래가 끝나면 그때 막 남자분들이 이렇게 짝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김향순)

그럼 뭇혈때 나오던가?

(배양순)

여자들이 하는 역할들 여자들만 하는 역할들이 있고 남자들.

(전남숙)

디딜방아 고사 지낼 때 여자들만 하는.

(배양순)

일단 남자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김윤설)

숨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아예 안 보이는 대로 뒤에 완전히 빠져 있게 지금 옆에 서 있는데.

(배양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서 있을 데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김윤설)

그니까 의도적으로 아예 없어야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딱 숨어 있다..

(김향순)

남자들이 떼어 갖고 오구만. 그래 갖고 여자들을 주구만.

떼기는 남자들이 떼고, 들고 운반하기는 여자들이 운반을 하고만.

(김향순)

아! 인제 생각이 난다. 이 사람이 이려고 이것이 지금 디들 방아를 떼어온 집이잖아. 동네잖아. 망을 보고 있어 마을에서 쫓아올까 자기 것 돌아가니까 쫓아올까 싶으니까 거기서 망을 보고 이걸 본 게 기억이 나고만.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돌아왔기 때문에 행여나 이 마을에서 쫓아와서 다시 뺏길까 싶은 게 망보고 있다.

(배양순)

나와. 나오니까 또 말리더라.

(전남숙)

맞어. 말리더라구.

(김향순)

본께 그 용도야. 왜 왜냐하면 무사히 다 떼 갖고 여자들한테 넘겨줬는데 마을에서 이제 쫓아와서 뺏어갈까 싶은 게 그 마을 사람들 오나 안 오나 망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그 다음.

(김윤설)

그 아까 주술 할 때. 여자들끼리 할 때 동그랗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딱 앉아서 이렇게 빌잡아요. 그때 남자들이 있는 옆에 서 있는거나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데서.

(김향순)

주술 아까 어디 언제 주술했는지?

(배양순)

여기 남자들 남자들은 없습니다. 여기가.

(김향순)

이거 갖다 놓고 이제 무당들이 올 거 아니야 그걸 봐야지 이제 다 쪽 보내봐.

(김향순)

동네 애기들이 없는 동네가 없지.

(전남숙)

디테일하게 연출하셨네. 그러니까 나 좀 있길래 거기 놀러 온 애들인가.

(김향순)

일부러 투입을 시켰어.

(배양순)

이쪽 뒤에 숨어 있어 남자들은.

(전남숙)

아까 그 고쟁이 빨간 -아들 잘 낳는 집- 속곳에다가 진짜 저거는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냈을까. 무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했을까 저건 속곳에다가 피 묻혀서 디딜방아 고사지낼 때.

(김향순)

원래 옛날부터 그랬다니깐.

(전남숙)

무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마을에서?

(김향순)

마을에서.

(전남숙)

마을에서 그걸 알려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향순)

마을에서 그래왔지. 해 왔지. 피 묻은 속곳을 걸어야지 액을 막는다고.

(배양순)

음양 사상이잖아. 음양 사상 동양철학 안에서.

(전남숙)

여기 다 여자들만. 이제 그것도 여자들이 디딜방아 가져온

(배양순)

이거 할 때는 여자들끼리만. 여자들이 지내는 거지 남자들은.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아들들이

(전남숙)

어. 지금 하고 있어.

(김향순)

내가 보기에는 이게 속곳이 여자를 여자잖아. 여자를 상징하니까 아마 그 디딜방아를 해서

여자 속곳을 걸어 나와 피 묻은 속곳을 걸어놓으니까 좀 남자. 여자의 어찌 보면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남자들은 안 오고 여자들만 그 제를 지내지 않을까 그건 내 생각인데

당사자라도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속곳에 또 피가 안 묻었다면 또 모르는데 여자들의 치부잖아 속곳에다 피를 묻혀서 이걸 이렇게 걸어놨는데 남자들이 보기에는 좀 그러니까 남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 줄 수도 있지. 의도적으로 여자들 그거 좀. 여자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으니까.

저것도 썩 빠지게 저거 가르치느라고. 못 헌다는 걸 살살 꼬셔가면서 할 사람이 없어갖고

그것은 아까 그 남자들이 안 보인다는 것은 나 생각은 그런 뜻일 수도 있어.

(전남숙)

그렇겠네요.

(김향순)

여자들 생각하는 것도 여자의 치부를 남자들이 보고 앉았다는 것. 또 그리고 여자들이 이래 갖고 있는데 그 앞에서 또 남자가 업져서. 좋아 한다는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고. 제를 지낼 때만큼. 여자들 거시기니까. 맞아 그런 뜻일 거야.

(전남숙)

원래 당산 할 때도 여자들 못 오게 했잖아. 옛날에 남자들만 할 때.

(김향순)

여자들이 거시기 할때 옛날에 배도 여자들 배 못 타게 했잖아. 옛날에 재수 없다고 배도 안 태웠어. 여자들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여자가 먼저 배에 거시기. 뱃머리에 가 있으면 남자들은 재수 없다. 그날 배 운항도 안 했다고.

(윤미라)

하여튼 옛날에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어.

(김향순)

또.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고 의문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는 데까지는 대답해 주고 나도 모르는 거 모른다 해야지. 괜히 모르면서 앉아.

(김향순)

꼭 옛날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시대가 변하니까 그 당시에 부족했던 점은 요새 조금. 그 대신 기둥은 반드시 지켜야 돼. 기둥은 지키되 이제 화채 가락만 약간씩 입혀야지 너무 그것을 옛날 것은 무시해 보고 현대에 거시기 해보면 이제 그건 이제 전통성이 없어지겠지. 그러니까 옛날 거는 하되 조금 거기에다가 조금 약간 가미 할 것은 가미하고 또 옛날 것이라도 저건 좀 그렇다 한 건 조금 삭제해도 되고 그게 이제 복원 사업이 꼭 그대로 할 필요는 없어.

(배양순)

그럼 궁금한 건 이제 있어도 그만 질문하시고 개인적으로 한꺼번에 몰아서 차후에 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또 미숙하나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알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